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10년 해외 원조 주일 담화문
(2010년 1월 31일)

해외 원조,
세계의 가난한 이들과 벗이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10년도 해외 원조 주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더욱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에게 참된 벗이 되어 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의 으뜸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태 22,36-40; 마르 12,29-31; 루카 10,25-28 참조).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느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이는 ‘굶주린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고’(마태 25,35.37.42 참조), 우리 가운데에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사도 4,34)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보답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이들’(루카 14,13-14 참조)과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을 포함하여,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마태 14,16 참조),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루카 10,29-37 참조)에게 조건 없이 실천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지난해 9월에 세계식량계획(WFP)은 지구촌의 기아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실은 세계 인구의 1/3에 이르는 27억 명이 2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빈곤층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도 태풍 모라꼿과 켓사나 등으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수해를 입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에서는 강진이 발생하여 1천 명에 가까운 이웃들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원인을 살펴보면, 피해를 입은 국가나 국민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 의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탐욕과 국가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여 베푸는 시혜로서가 아니라 드러난 문제들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제공해 주는 것이 오늘날 요구되는 지구촌의 연대 의식입니다.

참된 벗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어떤 이가 참된 이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당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적대관계에 있는 부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당한 이와 같은 부족의 사람들도 그를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에게 ‘다가갔’ 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상처를 치료하고,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 습니다. 다음 날 여관 주인에게 후한 대가를 약속하며 뒷일을 부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여라.’고 권하셨습니다(루카 10,29-37 참조). 이처럼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진정으로 다가가 필요한 도움을 줄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참된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발표된 교황들의 여러 문헌들로 새롭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도 최근 펴낸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사회 회칙에서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결합된 세계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빈곤과 식량 위기, 인권, 노동, 정의, 환경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사회가 더욱 세계화되면서 우리는 서로 이웃이 되지만 형제가 되지는 못한다.”(19항)고 지적하신 교황께서는 ‘공동선에 봉사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이끌며, 부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임을 강조하시고 이를 위해 세계 모든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고 연대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제안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결같이 사랑의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어디에서나 우리의 나눔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이 나눔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밖에 모르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온전히 ‘너’만을 위한 사랑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 주셨으며,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벗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참조)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불씨를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전하기 위해 앞장서며, 늘 열려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들을 참된 벗으로 바라볼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로마 5,5). 마찬가지로 저 또한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여 사랑의 길을 트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축복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0년 1월 31일 해외 원조 주일을 맞이하며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안명옥 주교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대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1월17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20.00
교 무 금 :
감 사 금 : \$ 55.00 50(137),5(156)
성전건립 : \$ 180.00 20(101)20(103) 5(105) 20(110) 20(112) 5(120) 20(122) 10(130) 10(133) 20(137) 5(154) 20(156) 5(익명)
성모님동산 (누계):금주\$ 10 (\$5575.00)
합 계 : \$ 955.00

본 당 소 식

◎ 첫영성체반 모집 안내

공동체의 새싹이 되어 큰 나무로 자라날 첫영성체 교리반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Grade 3 학년 이상인 학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새로이 임명된 교리반 선생님께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이은희 이벳따 자매 ☎ 519-579-0154

◎ 봉사자 임명

▶캠브리지 구역장 : 조성근 베네딕도 형제
수고해주신 전임 봉사자께 감사드립니다.

◎ 교육관에 비치할 영성 도서나 CD를 모집합니다. 한번쯤 다른 교우들과 함께 했으면 했던 책, 음악등을 모집합니다. 각 교우가 집에서 1가지씩만 가져오셔도 대략 50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사목총무 한택중

◎ 안내/헌금 담당

▶2월 : 워털루 1 구역

▶3월 : 워털루 2 구역

해당 구역장님께서서는 2인 1조로 봉사팀을 구성하시어 30분전까지 본당에 도착하여 미사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는 반드시 헌금 봉헌자 지정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티 난민 구제 헌금 모금 안내

지진 참사로 고생하는 아이티 난민 구제를 위해 교구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한다는 공문이 하였습니다. (2월 첫주일까지 모금합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일에 쓰여지니 전 교우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성금 모금액 누계 : \$496.00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공지 사항입니다.

다음 모임은 2월 5일 오후 7시 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더 많은 교우들의 참석을 위해 시간과 모임 장소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문의 : 한택중 막시모 (☎ 519 669 5551/

이메일: tj1234@catholic.or.kr)

◎지난 11일 해밀턴 교구장이신 토너스 주교님과의 면담을 갖고 이에 따른 협의 사항과 그 내용을 교우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책임신부님이신 고원일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해외이주사목위원회를 통해 저희 공동체 본당주임사제의 파견을 의뢰한 바, 수원교구청에서 교구장님의 주도하에 오는 8월 중 인사발령 시기에 저희 본당 주임사제를 파견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토너스 주교님께서 본당사제부임을 수락하는 답신을 보내셨습니다.

이에, 저희 공동체 신자분들께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와 더불어 새 신부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찰과 기도로서 거듭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십자가의 길'과 '목주기도'는 새 신부님이 부임하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다 더 굳센 믿음으로 모두 한 마음이되어 그날을 기다려야 할 때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성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교우의 협조로 이루어졌던 친교 식사를 당분간 중지합니다. 새로 성모회 임원 구성이 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구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공동체를 위한 청원기도 안내

* 십자가의 길: 매 주일 오후 4시 15분 본당

(선도자 명단

1월 31일- 공동체분과장 박용대 바오로

2월 7일- 선교분과장 박재영 바오로

2월 14일- 교육청소년분과장 노동원 라자로

2월 21일- 관리분과장 이명희 스테파노

2월 28일- 워터루 1 구역장 류무열 레오비노

* 목주기도 지향: 각 구역별로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이상희 세라피아 ☎ 519 864 3533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10-05호

2010. 1. 31.

연중 제 4주일

해설 이명희

차주 해설 노재현

성 가

입 당 (46) 사랑의 송가

봉 헌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성 체 (174) 사랑의 신비

퇴 장 (39) 하나되게 하소서

화 답 송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 알렐루야

영성체후 묵상 눈먼 이가 눈 뜨고, 병자들이 나오며, 악령 들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고향에서는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편견 때문입니다. 이렇듯 편견은 무섭습니다. 기적까지도 거부하게 합니다. 언제라도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독 서

1월 31일 노동원 노성은

2월 7일 박용대 박명옥

봉 헌

1월 31일 조성근 조현숙

2월 7일 노동원 노성은

(헌금 담당 : 사목 위원)

복 사

1월 31일 류지현 이수민

2월 7일 안아림 김근영